

# 파올로 포르토게시 건축에 나타난 바로크적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aroque in Architecture of Paolo Portogheshi

**Author** 한명식 Han, Myoung-Sik / 정회원, 대구한의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조교수

**Abstract** In the study will look into how Baroque concepts are expressed in architectural space by analyzing the concepts of Baroque formative vocabularies applied in his architecture through a Spanish architect Paolo Portogheshi. Baroque is regarded as the philosophical thought that means enlargement toward diversity of a firm and fixed trend beyond the concept of a certain epochal form of 16th and 17th century architecture. In addition, it is from the free attitude and the intelligent and formal stereotype, and signifies common conditions more than one style in architecture history.

Paolo Portogheshi proposes to express gestalt approach by Baroque precedent in his architecture through plasticity and geometric collision technique. Here, the expression of plasticity means the effect that gives formative rhythm to Baroque curved structures. That is the method to expand the formative possibility by changing various materials such as bricks, concrete, and timbers. Second, the geometric collision technique is the technique to constitute the flat form of overall space through the juxtaposition technique, Baroque symmetrical and homogeneous geometric manipulation technique.

Accordingly, this study will overcome Inlimitation of formative monotony and expression of abstraction that modernism architecture has, and examine formative waste and conflicts which may be derived from impractical architectural languages of the concept of excessive disorder or the minimum form. This discussion is considered as the first step to tune balance between productivity and formativeness in modern architecture.

**Keywords** 바로크, 파올로 포르토게시, 가소성, 기하충돌  
Baroque, Paolo Portogheshi, Plasticity, Geometry Collisi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바로크는 16, 17세기 건축이라는 일정의 시대적인 양식의 개념을 넘어서 부동적이고 확고한 하나의 경향에 대한 다양성으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철학적 사유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태도와 지적이고 형식적인 선입관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예술사에서의 하나의 양식 이상의 공통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건축 조형적 측면에서의 바로크적 개념은 로마의 정형성과 르네상스의 규범성에서, 그리고 모더니즘건축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비실용성에 대한 부동성을 다양성의 표현 의지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것은 건축 공

간의 형식과 의미에 있어서 학설의 법칙으로 부터, 그리고 관습과 부동의 기하개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정신적 해방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크 양식이 가지는 하나의 시대적 사조로서의 가치 그 이상의 의미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페인의 건축가 파올로 포르토게시(Paolo Portogheshi, 1931-현재)를 통하여 그의 건축에 적용된 조형어휘를 분석함으로써 바로크적 개념이 어떻게 건축 공간속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고찰하여 볼 것이다. 이로써 모더니즘 건축이 가지는 조형적 단조로움과 추상성의 표현에 있어서의 비한계성을 극복하고, 지나친 무질서 또는 최소 형태 개념의 비실용적 건축언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조형적 낭비와 갈등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생산성과 조형성 사이의 균형을 조율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 이 논문은 2009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는 먼저 예비적 고찰의 부분으로서 본 연구의 핵심어가 되는 바로크 건축의 개념을 고찰하고 건축에 있어서 바로크적 개념이 가지는 조형성과 형태원리, 그리고 당 사회적인 철학적 의미를 라이프니츠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바로크적 개념이 의미하는 본질적 형태 요소들을 분석하며, 이러한 개념들이 현 시대의 조형철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크적 형태개념에 대한 관점에서의 포르토게시의 건축어휘를 분석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통하여 그가 바로크적 어휘를 주된 전략으로 사용하여 건축을 만드는 배경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또한 이러한 배경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떠한 식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 형태적, 공간적 측면에서 포르토게시 건축의 특징을 규명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며, 이를 통한 그의 건축적 조형요소들과 바로크적 특성을 비교하여 다양한 특징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유형별로 정리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리된 그의 건축적 어휘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인식되는지에 대하여 분석 할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7세기 바로크시대의 철학적 개념을 라이프니츠를 통하여 고찰하며 인식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당시대 건축에 반영된 표현 어휘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포르토게시가 바로크적 조형어휘를 통해 건축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대상은 그의 전 작품이 범위에 포함되나, 가능한 실현된 프로젝트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계획안 중에서도 건축적으로 조형적 의미가 있는 작품은 포함시킬 것이다.

## 2. 바로크양식의 공간 개념

바로크는 영속적인 규범들과의 갈등에서 해방되는 진행형의 형태미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학설의 법칙으로부터, 그리고 관습과 기본적인 기하의 부동성으로부터의 정신적 혁명이며, 대칭에 의한 내, 외부사이의 대조로부터의 자유화이다. 이러한 자유정신은 바로크에서 비롯된 철학적 개념을 통하여 형태전반의 표현요소에 반영되었고, 특히 건축을 통하여 유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로크 건축은 16, 17세기 건축이라는 하나의 시대적인 적용을 넘어서, 자유로운 태도와 지적이고 형식적인 선입관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예술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하나의 양식이상의 공통적인 조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크는 단순히 낭만주의라

는 한정적 시대 미학만이 아니라, 로마 바로크와 현대건축에서 끝임 없이 이어지는 형태 논쟁의 중심적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바로크 양식은 공간을 형성하는 새로운 힘으로써 매우 다양한 분야로부터 전체를 통합하는 힘으로 나타난다.<sup>1)</sup> 따라서 르네상스나 바로크의 건축과 미술사적 중요성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여보면 첫째, 서양건축의 총체적 고전성은 전통을 전형화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당시의 새로운 과학과 인문학, 종교 그리고 사회전반의 함축적 의미를 건축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그들의 건축적 양식이 현대를 포함한 후대의 건축과 조형논리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건축공간의 형식과 의미에 있어서 학설의 법칙으로부터 관습과 부동의 기하개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정신적 해방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이러한 차원에서 바로크는 하나의 시대적 사조로서의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 2.1.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배경을 통한 개념

17, 18세기는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의 환원주의<sup>3)</sup>와 수학적 논리에 의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대두된 시기였다. 그러나 바로크는 세계를 양적인 규정만으로 정의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데카르트 과학의 기계적 세계관과 반대 입장에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BC322)적 사유의 부활을 주창한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 1646-1716)에 의해 영향 받았던 시기이다. 바로크 예술은 르네상스 시대에 강조되었던 규칙, 관습, 기본적인 기하학, 부동성으로부터의 저항이었으며, 1750년을 전후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기에 일어났던 예술적 흐름이었다.

바로크 건축은 형태적 특성으로 보아서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보다는 라이프니츠의 생성철학에 더 영향을 받은 건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것에 대하여 라이프니츠 철학의 의미를 조망해보면 방법론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방법론적인 측면은 그의 철학은 전통(그리스 시대의 목적론적 세계관)과 당시의 바로크적 개념을 조화시켜 볼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데카르트 등의 기계론에 맞서는 목적론적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그는 당시의 지배적인 데카르트, 뉴

1) Arnold Houser,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근세사편), 백낙청, 박성완 역, 창작과 비평사, 1980, p.109

2) 한명식, 뉴욕5건축과 바로크건축에 나타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2호, 2005.4, p.65

3) 이 시기는 계열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최초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상은 데카르트에 의해 제시되었고 19세기 비인 학파는 이러한 가치를 내걸고 모든 학문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튼(Sir Isaac Newton, 1642-1727)의 기계론적 자연관과 전통으로 대변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라이프니츠가 옹호했던 내용들은 이미 그의 시대에 기울어가던 것들이었으며 결국 기계론이 승리한 셈이 된다. 오히려 기계론이 승리를 거둔 현대에 있어 라이프니츠의 철학이 갖는 매력과 의미는 각별해 보인다. 또한 그는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으로 초토화된 유럽을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한 점에서 살펴보면 공간적으로 서양과 동양, 시간적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통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17세기의 라이프니츠 철학의 사유가 20세기 후반에 와서 다시 부활 하였다는 점이다. 20세기 초에 러셀(Russell, Bertrand Arthur William, 1872-1970), 카시러(Cassirer, Ernst, 1874-1945) 등이 부활 시켰고, 20세기 후반에는 세르(Jean-Pierre Serre, 1926-)<sup>4)</sup>와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의 힘이 컸으며, 건축이나 회화, 음악 등에서의 바로크 예술의 부활이 있었다. 이처럼 20세기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의 사유체계에 관심을 가지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그의 철학이 현대에 와서도 동시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2.2. 비선형적 개념

비선형적 개념은 각각의 요소에서 기인한 부분적 형태들의 총합인 플라톤식 조화가 아닌 복잡한 전체구조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자연의 유기체적 형태 본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며 형태생성과 변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체 형상 내에서 특수한 부분적, 요소적 특성은 배제되고 전체조직화에 구조가 어떻게 관여하는가? 그리고 전체형상의 복잡성 속에서 어떻게 질서적 특성과 일관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흐름으로부터 시작된 사유체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 원리를 건축 속에 실현시켰다.

4) 세르는 라이프니츠의 사유의 체계성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라이프니츠 개념	현대적 개념
모나드/미시적 단위들	실체론적 형이상학
단순한(mere) 복합체들	역학적 물리학
동물들	생물학
인간	의학 및 심리학
인간공동체들	정치학
천체들	천체물리학
우주전체	형이상학
가능성의 영역	신학: 목적론적 형이상학

이정우, 주름 갈래 울림, 출판사거름, 2001, p.234

### (1) 중첩성

바로크 건축은 평면성을 극복하고 깊이 감을 주기위해 중첩의 요소를 사용한다. 즉 바로크 양식은 형태 앞에 또 형태, 겹쳐진 것 앞에 지속적으로 겹침으로서 파악되어진다. 이러한 중첩으로 생겨난 바로크 공간은 어떤 특정 시점으로 고정되어서 파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입 공간에서 출발하여 과정적 공간을 거쳐 목적 공간으로 이어지도록 중첩된 흐름을 유도하게 된다.

### (2) 통일성

바로크건축에 있어서의 통일성은 부분이 독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전체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별성과 통일성이 각각의 전체 속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내, 외부가 연속되어지는 건물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이 효과는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 1598-1680)의 성 베드로 성당(San Pietro Basilica, 1655-1667)의 원주회랑으로 에워싸인 정면 광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성 베드로 성당(San Pietro Basilica)

### (3) 운동성

바로크적인 것은 복잡한 것, 주름진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근대과학의 핵심 발명품 중 하나인 무한소 미분에서도 두드러진다. 바로크적인 것은 곧, 운동하는 연속성 또는 연속적 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로크 예술문화 전반에 있어서 형태를 통해 보이는 운동성은 16세기의 르네상스와는 구분된다. 바로크 건축의 벽체는 물결치듯 구부러져있는 중첩구조를 통해 새로운 공간개념을 창조하고 있다. 바로크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완성체로서가 아니라 공간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며, 보다 활동적인 공간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바로크 건축은 공간의 융합이나 상호관입, 측방향의 확장 등을 통한 역동감을 표현하였고 점중, 연쇄, 통합사이의 상호모순, 불일치로 인한 변형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공간과 형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보이드(Void)를 기하학적 패턴으로 나누어서 뚜렷하고 리듬 있게 분할하는 고전건축의 규범을 바로크건축은 부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크 건축은 또 다른 역동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써 르네상스 건축과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기능과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동선으로써 계획에 반영된 운동체계보다는 각 공간의 구성적 특징을 반영하는 운동감에 의한 체계이다. 그리고 바로크 건축은 공간의 연속이 일정의 논리를 가지고 전개되는 것처럼, 공간 안에서의 사건들도 논리적이고 의도적인 체계에 의하여 전개된다.

이것은 합리적인 순환개념으로써의 운동개념과 관계된다  
고 볼 수 있다.

### 3. 파올로 포르토게시 건축의 특징과 바 로크적 경향

포르토게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던바로크 건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포괄적 이라함은 포르토  
게시가 바로크의 고전적인 건축 어휘들을 현대적 재해석  
을 통하여 조형적 응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체계화 하  
였다는 일반론적 견해이며 형태주의, 신표현주의, 기하충  
돌, 포스트모더니즘<sup>5)</sup>과 같이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보편  
적인 바로크적 어휘들을 복합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시  
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바로크 건축가인  
보로미니(F.Borromini, 1599-1667)의 건축 형태적 원리와  
의 연관성은 그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이를 통해 생성된  
공간은 의미뿐만 아니라 수학적 방법론을 통한 형태언어  
들을 그의 건축 프로젝트에 반영하여 공간과 도시, 경관  
등에 표현해 내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의 이러한  
건축적 언어체계를 이루는 모던바로크, 기하학적 충돌의  
기본적 개념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 3.1. 모던바로크에 의한 형태주의적 경향

어느 문명이든 간에 한 문명체계가 완성점에 달한 이  
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허무주의적 진공상태  
가 일정 기간 뒤 따르게 된다<sup>6)</sup>. 그것은 특정시대의 문화  
적 고점이 가져다주는 나른함과 권태로움에 대한 매너리  
즘적 반발의 경향으로 나타나며 일탈이라는 조형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매너리즘이라는 과도기적 경향의 양  
식은 비단 17세기 바로크 시대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  
다. 후기 로마건축에 나타난 탈 규범성은 편의성과 과시  
욕의 특징을 동반하며 고대 바로크의 초석이 되는 매너  
리즘적 경향을 가졌으며, 다다적 조형관과 초기 포스트

모더니즘적 건축방식에서 나타나 모던 바로크라는 개념  
을 이끌어낸 건축적 경향<sup>7)</sup>의 예도 들 수 있다. 특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체계인 모더니즘 기계문명이 전례  
없는 심각한 문명병을 부산물로 남김에 따라 이것에 대  
한 매너리즘적 일탈경향은 그만큼 심각한 다다적 고민으  
로 점철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현대건축에서는 반고전주의, 반형태운  
동 신표현주의, 해체건축등과 같은 다다적 색체가 짙은  
일련의 반문명적 건축운동들이 연달아 시도되고 있다.  
비정형(Informel) 건축의 경향과도 공유되는 이러한 모던  
바로크는 모더니즘 건축의 기계적 생산방식에 대한 매너  
리즘적 다다관을 형태주의적 관점에 치중하여 풀어나간  
특징을 갖는다.<sup>8)</sup> 이것은 모더니즘 건축의 단조로움에 대  
한 해결을 모색하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박스 형태에  
의한 대량생산 개념을 기하충돌과 접합시키려는 형태주  
의 경향으로도 볼 수 있다. 기하충돌의 건축관은 바로크  
적 조형관의 대표적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선 시대에 완성된 양식인 르네상스적인 규범적 전통  
방식에 대한 기하조각의 변형을 통하여 표현력 높은 조  
형건축을 추구하였던 바로크건축은 기하조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형규범을 분명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긍정적  
조형관위에 성립되었다. 이 때문에 모던바로크는 생산성  
의 문제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고민했던 구조주의 건축  
과 일정부분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적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포르토게시는 이러한 바로크적 선례에 의한 형  
태주의적 접근을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벽체를 도자기처럼 구워서 탄력감 있게  
만드는 기법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바로크 건축의 중  
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sup>9)</sup>

#### 3.2. 기하충돌 기법을 통한 형태주의적 경향

서구 유럽문화에 끼친 과학적 관념의 영향과 그 영향  
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관념들은 기하학적 사고로부터 유  
래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주로 플라톤의 철학에서  
근거되며, 그의 사상으로 부터 서양사상 전반에 기하학적  
사고의 전통으로 계승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건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하학은 근대건

5) 근대주의 건축의 범주를 벗어 날려는 공통적인 경향은 기계적이고  
확실적인 비인간적 성격의 탈피였으며, 근대주의 비판, 의미론적인  
주장, 역사-지역주의적 주장과 같은 이론이 20세기말 전개되었다.  
포스트모던 계열의 선구자인 포르토게시는 1980년 베네치아에서  
열린 비엔날레에서 포스트모던 건축가 그룹에 의해 전시된 작품의  
취지와 해설서를 겸하는 그의 저서 '포스트모던-공업시대 이후 사  
회의 건축'(Postmodern-The Architecture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1983)에서 과거건축의 형식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  
하도록 주장하고 하면서 포스트모던 건축을 정의하였다. 그의 포스  
트모던 건축 견해는 '정보전달의 매체'라는 관점에서 벤츄리, 쟁크  
스의 견해와 동일하며 '장소'(place)의 특성을 중시하는 점에서 노  
르베르그 슐츠의 사상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건축이란 대지  
(earth)를 인간의 필요에 적합하게 만드는 기술이며 그 재료  
(material)는 대지의 일부이므로 건축은 인간에 의해 변형된 대지  
이다. 따라서 그 결과가 장소(place)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당연  
하며 그 차이는 '도시의 색'(The color of city)으로 나타난다고 하  
였다.

6)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운동, 시공사, p.100

7) 이 시기의 건축 양식 역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앞 양식  
에 대한 매너리즘적 일탈의 경향이 크게 유행하게 된다. 특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명체계인 모더니즘 기계문명이 전례 없는 심각  
한 문명병을 부산물로 남김에 따라 이것에 대한 매너리즘적 일탈  
경향 역시 그만큼 심각한 다다적 고민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게 되  
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1970년대 이후의 현대건축에서는 반고전  
주의, 반형태운동 신표현주의, 해체건축등과 같은 다다적 색체가  
짙은 일련의 반문명적 건축운동들이 연달아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임석재, Op. Cit., p.100

9) 이런 특징은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건물을 짓는 조적식의 축조성  
에 대비되어 원하는 형태를 빚은 후에 한 번에 구워 만든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가소성(Plasticity)이라 불린다.

축에서 순수 기하학의 추상미학으로 가장 변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모더니즘건축에 의한 추상미학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생산성의 증대라는 이름으로 단순 박스형태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단순기하학적 형태는 근대건축 이후 조형성의 결여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조각과 같은 예술품과 달리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산성이라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생산성의 문제와 조형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던 노력은 형태주의 건축의 일환으로 도래된 모던바로크에 의하여 기하충돌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기하학을 이용하여 조형성 풍부한 형태를 이루어 내는 방법이였다. 특히 기하충돌기법에 의한 이러한 조형적 형태개념은 현재까지도 헤체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현대건축의 조형적 언어로 활용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의 단순한 평면상에서의 2차원적인 기하충돌 뿐만 아니라 3차원적으로도 적용되어 매스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입, 중첩시킴으로서 더욱 복잡한 비정형적인 형태를 형성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나타나는 건축형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반중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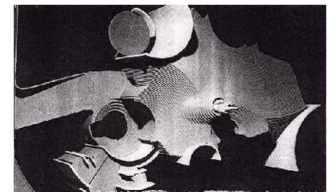
형태주의 건축에서 비롯된 모던바로크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하충돌 기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원 평면적인 형상에서 벗어나 3차원 매스의 충돌로도 나타나고 있다. 3차원적인 매스충돌은 중력방향의 직교 좌표계에서 탈피하여 외벽을 사선방향으로 구성하거나 아예 매스들이 서로 중첩함으로써 하늘을 부유하려는 중력적 이미지로도 나타난다. 그리고 매스에 캐노피의 형태나 선형부재들을 덧붙이거나 매스를 투명한 유리로 처리함으로써 반중력적 이미지를 배가시키기도 한다.

#### (2) 역동성

기하충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정적이고 안정적인 기하도형의 축을 변형시키거나 여러 도형을 다양하게 중첩시킴으로써 단일도형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동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3차원적 조작에 의해 더욱 더 역동적인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이것은 기하조작을 넘어 기하과피의 형태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포르토게시가 1966년에 설계한 탑상 집합주택이라는 프로젝트(S.Marinella, 1966)는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은 각기 다양한 직선적 개념의 기하학적 평면들이 서로 어떠한 규칙성도 무시한 채 산만하게 중첩되어 상승적 조형의지만 나타내고 있다.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에 의지하게 되는 구조적 근거들이 전면 무시되는 개념이다.

로버트 벤츄리의 말을 인용하면 경계는 내외부의 힘이 만나는 곳이 된다고 하였다. 포르토게시에게 있어서

의 기하충돌의 개념은 그의 전 작품에 대한 열쇠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세계에 대한 열쇠도 된다. 이러한 열쇠를 통하여 내부는 장소내의 공간으로 변화되고, 범위가 정해지고 경계가 만들어진다. 여기에서의 경계는 단지 범위 이상의 어떤 특성을 갖는다. 또는 그것들은 어떤 특정 공간을 한 장소로 변형시키는 특성이기도 하다. 경계의 범위는 임의가 아니며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간에 주위와 관계를 갖는다. 관계는 구체적인 본성이고, 공식적인 언어, 즉 건물이 어떻게 지면에 서있고, 하늘을 향해 상승하며, 주위에 열려있거나 닫혀있는지에 의존하며, 어떤 환경에서는 건물이 환경에 안겨지거나 닫혀져야 한다.<sup>10)</sup>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포르토게시에게 있어서 기하학적 개념은 건축가의 의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 패턴으로 결합되어 질서와 자유의 미묘한 상호작용으로 창조되며 실존적 공간을 구체화 하기위해 기하학을 활용 하는듯한 느낌을 가진다. 이것은 이탈리아 사레르노에 있는 성스러운 가족교회 (Church of the Sacred Family, Salerno, 1969-1974)의 평면에서 잘 나타나는데 수많은 원호 조각들의 불규칙하면서도 리듬감 넘치는 질서감에 의한 형태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그림 2> 성스러운 가족교회(Church of the Sacred Family, Salerno)

## 4. 건축개념의 유형별 분석과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르토게시의 바로크적 경향은 크게 가소성을 이용하여 바로크적인 곡선 구조체를 표현하는 것과, 기하충돌의 개념을 이용하여 자유형태의 기본공간을 비정형적으로 구성한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소성과 기하충돌의 개념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 조형개념을 통한 동일한 건축적 형태를 표현해내기 위한 동의적 기법들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그의 건축적 어휘가 실제 건축공간에서 어떻게 차용되어 표현되었는가에 대하여 주요 작품사례를 통하여 유형별로 살펴 볼 것이다.

### 4.1. 가소성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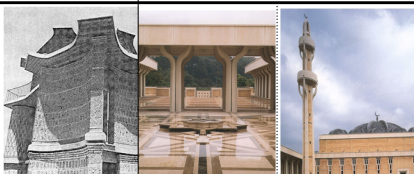


그의 건축에서 보여 지는 가소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구조체의 면을 통한 가소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바로크 건축의 3차원적 곡면의 개념과는 형식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3차원

10) Christian Norberg-Schulz,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이정국 외 역, Spacetime, 2000, pp.211-212

의 매스에 농축되어 있는 형태원리가 2차원적 개념으로 변환되며, 이때 2차원적 형태는 직선의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작품중 까사발디(Casa Bardi, Rome, 1959-1961)는 이러한 예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건물은 전체적인 형태의 굴곡은 보로미니의 작품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드 스틸(De Stijl)과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영향도 볼 수 있는데, 벽들을 조금씩 내어 쌓아서 바로크 건물의 벽면에서 볼 수 있는 곡면의 표면을 만든 후 매끄럽게 마감 처리함으로써 가소성의 개념을 표현하였다. 건물 본체 밖으로 돌출해 있는 바닥 슬라브와 지붕 슬라브 등의 수평 판재는 콘크리트로 처리됨으로써 전체적인 가소성의 느낌을 배가시켜 준다. 바로크의 건축인 산타마리아 마지오레 교회내 스포르차 예배당(Sforza in the Church of the Santa Maria Maggiore)은 이러한 가소성의 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소성에 대한 또 하나의 유형은 로마의 모스크 이슬람 센터(Mosque And Islamic Center, Rome, 1976-1984)의 내부 기둥 및 천장에 설치된 기하학적 리브 구조물들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딕이나 로마네스크의 궁륭식 구조 아치를 연상하게 하는 이것은 바로크의 내부공간에서 보여 지는 돔과 기둥들의 3차원적 형태요소들을 얹고 균일한 1차원의 곡선적 선형을 이용하여 3차원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마치 절사를 부풀린 상태로 감아서 부피감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것 같은 원리와 유사하다. 4개 또는 6개의 선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둥은 수직으로 상승하여 상부에서는 각자의 형태로 나누어져서 복잡한 형태를 이루게 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3차원적 형태의 바로크적 가소성을 표현해 내고 있다. 형태적으로 리브의 역할을 이루면서 돔과 기둥상부의 곡면 장식을 1차원적 선형의 요소를 이용하여 추상적으로

<표 1> 가소성의 조형원리 사례

	구조체 면을 통한 2차원적 가소성	기하학적 구조물을 통한 1차원적 가소성
외부 요소		
내부 요소		
조형원리	3차원적 조형이 2차원적 개념으로 변환되어 수직화 됨	3차원적 형태요소를 1차원의 선적 요소로 개별화시키고 다시 전체를 3차원적 볼륨으로 재구성
사례	Casa bardi, Rome	Mosque and Islamic Culture Center

표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 4.2. 기하충들의 개념

기하충들은 그의 건축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바로크적 공간개념을 나타내는 표현 언어이다. 그것은 도형의 상호 관입과 작용에 의한 병치(併置)기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중심, 즉 원의 중심을 통하여 시작되는 도형들을 반복함으로써 타원이나 기타 도형을 탄생시키기 위한 기하학적 작도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하여 무수한 원들을 작도하고 이들을 중첩시켜서 생겨진 교차점들은 평면상에서 공간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sup>11)</sup> 병치기법은 특히 바로크 건축가인 구아리노 구아리니(Guarino Guarini, 1624-1683)의 대표적인 평면구성 원리이다. 따라서 포르토게시는 이러한 바로크 건축의 병치기법을 통한 공간 구성방법을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형태원리로 이용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그의 상당수의 건축공간에 적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까사 안드레이(Casa Andreis, Scandriglia, 1964-67)는 좋은 예이다.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강한 접촉을 갖는 자유롭고 연속적인 공간으로 표현되어진 이 건물은 주변의 경관을 집약시키면서 동시에 분할하고 있다. 즉 경관의 부분 부분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천장이 높은 거실로부터 지붕 경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며, 지붕 경관은 다시 환경과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의 연속성은 5개의 점을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을 이루는 벽으로 만들어져서 잘리지 않는 단일 공간으로써 하나의 역동적인 흐름을 형성한다. 주요 개구부는 이러한 흐름이 갈라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가네다에 있는 베비라구라 저택(Casa Bevilacqua, 1966-1969)은 그의 기하충들의 개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기하학적 응용단계에서 약간의 변형된 원의 개념을 보인다. 기본적인 직선의 그리드 개념의 바탕에서 원호들을 생산시키고 그것들을 다시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2차적 개념의 반타원의 곡선 형태의 개념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반타원의 곡선들을 서로 대칭시키거나 연결하여서 기하충들의 개념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포르토게시의 또 하나의 기하충들의 개념은 직선기하학, 즉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같은 형태들을 충돌시키는 개념인데, 탑상집합주택(S. Marinella, 1966)이 이러한 예이다. 이것은 수직적으로 돌출된 스트라이프 패턴의 질감을 가진 각기 다른 크기의 직선기하형태의 블록들이 충돌되어서 상자들을 계획 없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11) 한명식, 구아리노 구아리니 건축에 건축에 나타난 기하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3호, 2005.6, p.101

형태이다. 건축의 기본조건인 모듈에 의한 규칙성이 무시된 이 개념은, 앞에서 언급된 원을 이용한 병치 기법과는 강하게 대조되는 개념이다. 원에 의한 충돌은 2차원적 면의 바탕에서 발생된 원의 조각이 수직적으로 높이감만 생성된 수평적 충돌인데 반하여 이것은 수평적 상태와 수직적 상태가 동시에 적용되어 되고 있다. 초기 작품으로 분류되는 그의 이 탐상주택의 개념은 그의 바로크적 기하충돌의 단초가 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4가지의 유형으로 기하충돌개념의 유형을 정리 하였다.

<표 2> 기하충돌개념의 유형

조형원리	사례 이미지	
2차 변형된 타원곡선에 의한 조형화		
순수 원형곡선에 의한 조형화		
순수 원형곡선과 직선을 혼합하여 조형화		
직선 기하학과 수직충돌을 통한 조형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파올로 포르토게시 건축에서 표현된 가소성과 기하충돌의 개념은 바로크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과는 일정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것은 먼저 가소성에 있어서 건축 형태의 구조체 자체가 3차원적 곡면의 형태를 이루는 형식인데 반하여 포르토게시의 건축은 직선적 요소들의 균질적 조합을 통한 곡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로 평면 구성의 도구로 사용된 기하충돌의 개념은 바로크 건축에서는 충돌을 통한 기하형태의 변형이 나타나지 않고 균질적이고 대칭적인 배치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포르토게시 건축에서는 충돌을 통하여 기하형태가 생략 또는 변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바로크와의 요소별 비교분석

	바로크	파올로 포르토게시
가소성	 3차원적 곡면의 형태	 2차원적 수직적 형태
	 바탕 구조체에 조형 요소를 첨가 또는 중첩	 3차원형태의 1차원 기하학으로의 변환 및 재구성
	 바탕구조형태에 세부조형요소를 첨가	 바탕구조형태 자체를 세부조형요소로 묘사
기하충돌	 원형기하요소를 변형 없이 균질적으로 구성	 원형기하요소를 부분절단 또는 직선과의 형태절충을 통한 변형으로 자유롭게 구성
	 대칭적 구조이며 균질적 기하요소로 구성	 비대칭적 자유구조이며 비균질적 기하요소로 구성

## 5. 결론

바로크 건축은 형태적 특성으로 보아서 라이프니츠의 생성철학에 바탕을 두었고, 그것은 각각의 요소에서 기인한 플라톤식 조화체계가 아닌, 전체구조의 형태 본성을 강조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이것이 가진 복잡성 속에서 어떻게 질서적 특성과 형태적 일관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의 문제에 대한 방법으로서 비선형적 개념을 통하여 중첩성, 운동성,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건축 속에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것은 멈추어진 형태적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항구적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형태원리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바로크적 형태원리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하여 조형적인 응용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한 파올로 포르토게시의 모던바로크에 의한 형태주의적 경향은 공간을 비정형적 형태윤곽으로 절대화하려는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그의 건축 속에 표현되어진 바로크적 표현과 이것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바로크적 선례에 의한 형태주의적 접근을 가소성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그것은 바로크적 곡선 구조체에 조형적 리듬감을 부여하는 효과와 함께 벽돌, 콘크리트, 목재 같은 여러 재료를 현대적으로 변안해 내어서 재해석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주었다.

둘째, 건축의 전체적 공간구조는 기하충돌기법을 통하여 생산되었다. 이것은 바로크 건축의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인 병치기법(Juxtaposition)과의 비교로 설명될 수 있는데, 병치기법은 비교적 대칭적이며 균질적 성격의 기하조작 방법인데 반하여 파올로 포르토게시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성방법은 비대칭적 자유구조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셋째, 바로크 건축에서 나타나는 곡선의 개념은 3차원적 입체조형의 바탕위에 또 다른 3차원 조형요소들이 부품화 되어 전체적 형태를 이루는데 비하여, 파올로 포르토게시 건축에서 나타나는 3차원 곡선의 형태 개념은 3차원적 형태가 2차원적 개념으로 변화되어 두께감만 주어지거나 3차원 볼륨자체를 1차원의 선적 요소로 변화시키고 분리하여 다시 3차원적 볼륨으로 재구성하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넷째, 바로크 건축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 개념은 건축구조의 형태를 통하여 자연의 유기체적 형태본성에 의한 체계를 나타내는 의도이었다면 이었지만 파올로 포르토게시는 건축공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물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네트워크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기하학적 작도행위와 이들의 충돌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하학의 표현에 있어서도 바로크는 순수기하 도형을 1차적으로 활용하였지만 파올로 포르토게시는 2차적 변형을 통하여 기하도형을 추상화하였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파올로 포르토게시에 의하여 표현된 바로크적 표현은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비정형 형태의 최소, 또는 최대한계를 긍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나치게 무질서하거나 절대적인 조형관에서 파생될 수 있는 조형적 조율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생산성과 조형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건축적 가치관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의도로 보여 진다.

### 참고문헌

1. Paolo Portoghesi, Postmodern-The Architecture of the Postindustrial Society, Rizzoli, 1983
2. 김용규 역, Charles Jencks, Late-Modern Architecture, 건우사, 1998
3. 최두진 역, Paolo Portoghesi,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 건축의 동향, 붐툼문화사, 1989
4. 이정국 외 역, Christian Norberg-Schulz,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Spacetime, 2000

5. 이찬웅 역, 질 들뢰즈,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로크, 문학과 지성사, 2004
6.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의 공간, 시공사, 1999
7. 임석재, 형태주의 건축운동, 시공사, 1999
8.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시공사, 2001
9. 윤재희, 현대건축론집, 세진사, 1986
10. 윤재희, 건축의 공간과 형태, 세진사, 1995
11. 윤재희, 현대건축의 동향, 세진사, 1987
12. 이정우, 접힘과 펼쳐짐, 거름, 2000
13. 이정우, 주름 갈래 울림, 출판사거름, 2001
14. 최정은, 보이지 않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한길아트, 2000
15. 윤익영, 카라바조, 재원, 2003
16. 윤창희, 바로크 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1982
17. 한명식, 구아리노 구아리노 건축에 건축에 나타난 기하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3호, 2005.6
18. 한명식, 뉴욕5건축과 바로크건축에 나타난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4권 4호, 2005.4

[논문접수 : 2009. 10. 16]

[1차 심사 : 2009. 11. 19]

[게재확정 : 2009. 12. 10]